

## 야권통합의 길 물어보니

# 손·문, 대통합으로 가야

(학규) (재인)

# 이·조·유, 연대가 현실적

(정희) (승수) (시민)

차기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야권대통합의 길은 멀고 험할 전망이다. 야권 대통합을 바라보는 각 당의 입장은 물론 정당 구조와 노선 등이 다른데다 기본적인 신뢰 구조도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기 총선과 대선 승리를 통한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집권 취지에는 야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통합의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기사 5면>

## 입장 팽팽 험로 예상...민주 양보 주목

지난 주 이뤄진 광주일보의 '야권 대통합, 길을 묻다' 연재 인터뷰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등 야 4당 대표와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야권대통합의 취지에는 모두 공감했다. 우선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야권연대보다는 야권대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나타냈다.

손 대표는 야권대통합은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이라며 올해 말까지 통합수입기구를 구성, 내년에는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이사장은 야권연대보다는 야권대통합이 고질적인 지역주의의 병폐를 타파하고 전국정당화를 이룰 수 있어 총선 승리와 함께 민주·개혁·진보 정권 창출의 지름길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진보 정당 대표들은 야권대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의 구조와 정체성 등을 감안할 때, 차기 총선에서 야권연대가 더 현실적이라는 입장장과 함께 민주당의 과감한 기득권 양보 등을 요구했다.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당의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야권대통합보다 야권연대가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분명

히 했으며,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야권연대 조건으로 차기 총선 공천 비율을 2(민주당) : 1(진보정당)로 제시했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는 정당 지지를 기반으로 한 연합공천을 바탕으로 차기 총선에서 야권 연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진보정당 통합 이후 이뤄질 야권대통합과 야권연대 논의과정에서 총선 공천 등에 있어 민주당이 제시할 '양보와 희생'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야권통합추진기구인 '혁신과 통합'을 이끌고 있는 문 이사장의 조정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야권대통합 심사 여부는 손 대표와 문 이사장의 정치적 입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전체적인 대선 구도에도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오는 10월 26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야권단일후보 심사 여부가 야권대통합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제1회 아줌마축전이 지난 2일부터 사흘간 시도민 10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4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전은 아줌마들의 넘치는 끼를 발휘하는 축제 한마당이었으며, 지역특산품을 싸게 판매하는 '알뜰장터'이자 시도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지역명품축제로 자리잡았다. /내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10만명이 즐겼다

## 제1회 아줌마축전 성료...지역 명품축제 첫 발

광주일보가 호남지역 최초로 주최한 '제1회 아줌마 축전'이 4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전은 전라도 아줌마들의 넘치는 끼와 열정으로 웃음꽃을 피운 '행복축전 무대'였으며, 광주와 전남 22개 시군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알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알뜰장터'이기도 했다. <관련기사·화보 9면>

지난 2일 개막해 사흘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흥겨운 무대를 꾸민 이번 축전에는 시도민 10만여명이 참여해 명실상부한 지역 명품축제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주부들은 '아줌마가요제'를 비롯해 '댄스·팔씨름·'골든벨'·'시낭송' 등 각종 경연에서 그간 숨겨온 노래와 춤 솜씨 등을

펼치며 낮기는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무색할 정도의 열띤 경쟁을 펼쳤다.

개막 후 이틀간 저녁에는 남진·현숙·조항호·유리상사 등 인기가수들의 화려한 축하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달구었고 초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흥겨운 시간도 제공했다.

아줌마들의 경연 중 '동네 명장'들이 참가한 '아줌마가요제'에선 박수미(40·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씨가 1등을 차지해 우승 상금 100만원과 함께 대한가수협회인증서까지 거머쥐는 행운을 안았다. 주부들의 재치와 시사상식을 겨루는 '아줌마골든벨'에서는 윤미숙(47·광주시 북구 임동)씨가 우승해 50만원의 상금을 차지했다. 이밖에 '시낭송대회'에선 안영숙(53·전주시완산구 효자동)씨, '나도스타'에선 박강순(50·광주시 남구 진월동)씨가 각각 1등으로 상금 50만원씩을 받았다. 또 '팔씨름대회'에선 김미영(38·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씨가 금메달을 차지했다.

추석을 앞두고 열린 이번 축전에는 지역특산물 200여 품목을 시중 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알뜰주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서승선기자 swseo@kwangju.co.kr

광신대학교 한국가정폭력상담교육원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일시: 2011년 9월 20일(화)~  
※매주 화, 목 18:00 ~ (총100시간)  
☎062)605-1112, 1063  
접수기간: 9월 9일(금) 까지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 알림

# '월요광장' 필진 바뀝니다

광주일보 대표 칼럼 '월요 광장'의 필진이 오늘부터 새로 바뀝니다. 사회 각계 저명인사로 구성된 새 필진은 전문성과 해안으로 우리 사회 및 지역 전반의 현안과 관심사를 깊이 있게 살피고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특히 새 필진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갈등 구조에 대한 해법과 함께 광주·전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 국내·외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필자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갈 것입니다. '월요 광장'에 대한 애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박선정 사무처장 김용의 교수 정택규 본부장 최협 위원장

◇박선정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전남대 사회학과 및 동 대학원 행정학과 겸 ▲제2~3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5·18 구속자협의회 사무국장 ▲동신대·광주대 겸임교수(1999~2003) ▲(주)한국문화진흥 상임감사

◇김용의 전남대 일어일문학과 교수  
▲전남대 겸 ▲중앙대 문학석사 ▲일본 오사카대학 문학석사 및 문학박사 ▲일본 오사카국립대학 조선어학과 강사 ▲오키나와 국제대학 남도문화연구소 특별연구원(현재)

◇정택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성균관대 겸 ▲미국 UCLA 대학원 경제학 석사 ▲한국은행 공보실 과장 ▲ 동경사무소 차장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 한국은행 국제협력실 부실장 ▲ 광주전남본부 기획조사실장

◇최협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위원장·전남대 교수  
▲서울대 겸 ▲미국 캔터키대 대학원 인류학 박사 ▲ 한국문화인류학회 회장 ▲광주YMCA이사장 ▲광주·전남 비전 21 이사장 ▲대통령 자문21세기위원회위원

光州日報社

## 안철수·박원순 출마 가시화...서울시장 보선 판도 요동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시사, 서울시장 보궐선거 구도가 무소속 변수에 크게 요동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은 4일 순천 문예회관에서 열린 '희망공감 2011 청춘 콘서트'에서 "기왕 이렇게 된 바에야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론을 내겠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

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안 원장은 지난 2일에도 "시장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 많다"며 "그동안 현실정치 참여의 기회가 많았는데도 거부 의사를 보였던 것은 한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일종의 패배의식 때문이었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열어 놨다.

또한,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도 본격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준비에 나서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희망제작소 핵심 관계자는 "박 이사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 오는 10일을 전후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며 "아직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선거에 출마한다면 시민사회 후보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은 안 원장과 박 이사의 최종적인 선거 출마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광주가 기다려온 중소형 타입의 공간 프리미엄

# 엘리체 전 평형 순위 마감

## 최고 경쟁률 79:1

뜨거운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 서진 종합건설 임직원 일동 -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체 용봉 엘리체

· 당첨자 발표 : 9월 8일(목) · 계약기간 : 9월 14(수)~16(금) · 문의전화 : 062)573-4400